

박은빈 연구원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정 인종·민족을 비롯한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자사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우리나라 또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과 건강 형평성 달성을 추구하는 만큼,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감염과 사망 등 피해가 특정 인종·민족을 비롯한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함
 -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 상황에서 그 피해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비롯한 사회 내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함
 - 미국의 인종별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미국 원주민(137명), 아프리카계 미국인(124명), 중남미계 미국인(117명), 백인(111명), 아시아계 미국인(79명) 순으로 아시아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의 사망자 수가 백인보다 높음¹⁾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9~64세 사이 흑인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19 사망률은 백인 남성과 여성에 비해 각각 4배, 3배에 이룸²⁾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건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월 코로나19 건강 형평성 TF(Covid-19 Health Equity Task Force)를 개설함
 - Cigna와 Blue Cross Blue Shield 또한 인종 간 건강 격차 완화 조치를 각각 2020년 7월, 2021년 4월 발표함³⁾
- 한편,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은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
 - 미국 최대 공공 보건의료 자선 단체인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들은 건강 불평등으로 인해 2009~2018년 동안 총 3조 3,7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됨⁴⁾
 - Cigna, UnitedHealth Group, Promedica, Kaiser Permanente 등을 비롯한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은 건강

1) Emory University Covid-19 Health Equity Interactive Dashboard, <https://covid19.emory.edu/>(접속일: 2021. 5. 6)

2) The Guardian(2020. 6. 19), "Black men in England three times more likely to die of Covid-19 than white men"

3) 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2021. 4. 20), "Press Kit: National Health Equity Strategy"; Cigna Newsroom(2020. 7. 17), "Cigna takes action to combat systemic racism and improve equity and equality"

4) RWJF(2017. 1), "Communities in Action: Pathways to Health Equity"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감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고객 만족도와 기업 평판 제고가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자사 고객과 지역 사회의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⁵⁾

- Cigna는 2008년 건강 형평성 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사 차원에서 건강 형평성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 격차 현황판 등을 만들어 건강 격차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확인된 건강 격차에 대하여 치료적/치료 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⁶⁾
 - Cigna는 2008년 건강 형평성 위원회(Health Equity Council)를 조직하여 전사 차원에서 건강 형평성 향상 전략을 추구함
 - Cigna는 자사 고객의 데이터를 토대로 건강 격차 현황판(Disparities Dashboard)을 만들어 고객의 건강 격차를 주/카운티 단위로 추적하고 GIS를 활용하여 의료 접근성을 점검하여, 확인된 건강 격차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Cigna는 건강 격차 현황판으로 라틴 남성과 흑인 남성 고객들의 높은 대장암 발생 빈도를 확인하고 대장암 검사 캠페인을 벌였으며, 흑인 여성 고객의 낮은 유방암 검사 비율을 확인하고 교통, 육아, 업무 등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이동식 검사 시설을 제공하여 흑인 여성 고객의 유방암 검사 비율을 높임
- UnitedHealth Group은 2010년부터 건강 형평성 전략을 개시하여 전사 차원에서 건강 형평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중점을 두고 건강 격차가 확인된 고객(집단)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함⁷⁾
 - UnitedHealth Group(이하, 'UHG'라 함)은 2010년 회사의 건강 형평성 전략을 개시하였으며, 수석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이 건강 형평성 최고 책임자(Chief Health Equity Officer)를 겸직하게 하여 전 사업 분야에서 건강 형평성 향상 노력을 기울임
 - UHG는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고객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의료 접근, 건강 상태 등에서 격차가 확인되면 해당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격차를 축소시킴
 - UHG는 자사의 의료보험 고객 중 미시간 주, 오하이오 주, 하와이 주에 있는 여성 고객들의 산후 조리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과 문화별로 적절한 개입을 추진하여, 2018~2019년 미시간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 흑인 여성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는 비율을 각각 42.4%, 83.2% 가량 향상시켰으며, 하와이 주에서는 도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산후조리 비율을 40.3% 가량 향상시킴
- 우리나라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토대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고객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 형평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미국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5) FSG(2019. 4), "Health Care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Racial Equity"

6) Cigna(2020), "Cigna Connets: 2019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7) UnitedHealth Group(2021), "Advancing Health Equity to Improve Outcomes"

-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1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을 발표하며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함⁸⁾
- 또한 정부는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와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와 현실은 상이하지만, 우리나라도 건강 형평성 향상을 추구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건강관리 토대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하여 자사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헬스케어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 형평성 향상 방안으로 제안하는 건강정보 체계 구축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은 미국 헬스케어 기업이 건강 형평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 내용과 일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시행에 있어서는 미국 헬스케어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8) 관계부처합동(2021. 1. 27),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1~'30)”